

美國文學에 나타난 東洋 및 韓國文化의 樣相 연구*

—歷史, 宗教, 民俗文化的 文學的 반영을 중심으로

이 기 철**

〈차 례〉

- | | |
|--------------|--------------------|
| 1. 서론 | 2) 미국 문학 속의 중국, 일본 |
| 2. 본론 | 3) 미국 문학 속의 한국 |
| 1) 세계사 속의 한국 | 3. 결론 |

1. 서론

通문화(Cross-Culture) 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화란 보편적이고 상호 교류적인 속성을 지닌다. 한 문화가 특정 지역과 나라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인 조건에서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은 없다. 문화가 인간 생활과 심성의 반영일 때 인간의 생활과 심성이란 개별적인 조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태되고 향유되는 문화란 거의 예외 없이 상호교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진 고유한 문화나 민속이 지리나 역사적으로 접맥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 스며 있거나 그러한 민족의 민속 속에 향유되고 있는 일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는 일이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나 구비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사실을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영남대학교 교수

인간의 사고나 심성의 보편적임과 생활 유형의 공통적인 성질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개별적인 문학작품에서 체현되었을 때는 그것을 인간 심성의 보편성과 생활 유형의 공통적인 성질에서 찾는다는 것은 막연한 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한 나라, 한 민족이 향유하는 특수하고 고유한 생활의 유형이나 모습들이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 속에 반영되었을 때는 통문화적인 관점 보다는 개별적인 전수 관계나 인위적이고 상호교류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추출해야 함이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을 문학의 특수한 영역에서는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이라고 하기도 하며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비교문화(Comparative Cul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은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문학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하여 그 작가(시인) 혹은 작품들 속에 동양의 종교나 문화, 생활습속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동양이라고 말할 때의 동양이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깊어 그것을 필요한 만큼 축소할 수밖에 없다. 동양이라는 개념 속에는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각 나라의 언어, 문화, 생활습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전반적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논문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문학 속에 나타난 동양의 역사, 종교, 문화, 생활 습속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문화와 생활습속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한국의 근대문학은 서구의 영향 아래 배태되고 성장해 왔음은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되어 왔다. 소설에 있어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 초창기 작가와 작품들이 일본을 통한 서구 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실이라든지, 시에 있어서 주요한, 김억, 황석우, 그리고 이른바 백조파로 불리우는 노자영, 이상화, 박영희, 30년대의 김기림, 이상까지도 그런 점

에서는 예외일 수 없음은 이제 상식이 된 것이다. 서구 문학의 수입이란 초창기 우리 문학의 형성과 발단에 중요한 조건으로 제기지어 졌음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서구 문학의 수입이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주로 일본을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 역시 불가피한 일에 속한다. 우리 근대문학의 이런 현상에 대해 더러는 ‘이식문학’이라고 매도한 경우도 있고 더러는 ‘현해탄 콤플렉스’라고 혹평한 경우도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서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 미, 불, 독 그리고 러시아의 문학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비교전대 이 가운데 미국문학은 우리의 초창기 문학 보다 모더니즘 문학 이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이미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문학은 우리 문학과 직접적인 교류와 영향 관계에 있음을 생각할 때 미국 문학과 우리 문학과 상호 교류 혹은 영향이나 반영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W.B.Yeats, W. Whitman, E. Penollosa, E. Pound, T.S.Eliot, P.S. Buck등의 동양에의 문학적 경도는 잘 알려진사실이지만 Irving Babbitt이나 그 밖의 시인들, 이를테면 W.C.Williams, W.Steevens, G.Snaider등의 동양적 관심과 경도는 뒷사람들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이들이 중국이나 인도, 일본의 문화나 민속, 언어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실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지만¹⁾ 직접적으로 한국 문화나 역사, 생활습속이 미국문학 속에 반영된 경우는 아직 만족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을, 미국문학 속에 한국이 아직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는 않다. 대단히 명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문학 속에 한국의 모습이 작게 혹은 크게 반영된 경우는 있다.J. London 의 기행문학²⁾, D.Mccann, Cathy Song의 시편들³⁾이 그

1) E. Pound와 동양에 관해서는 김종길 교수가 여러 편의 장단편 논문을 쓴 일이 있고 T. S. Eliot와 불교에 관해서는 정갑동,고창수의 논문이 있다.

2) 이는 J. London의 한국전쟁 때의 기행문이지만 필자가 입수하지 못했다.

3) D.Mccann은 현재 Cornell 대학 문학 교수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필자와 장시간 한국문학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고 Cathy Song은 한국계 미국의 현역 시인이다.

예이며 그밖에 한국인 이민 1세대와 2세대들이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품을 쓴 예도 있다.

조운제는 그의 저서 『한국문학사』에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쓴 문학 작품을 ‘큰 우리문학’으로 보아 한국문학사 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미 세계 130여개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현지에서 쓴 문학작품이 다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한국문학 속에 편입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간에⁴⁾ 한국인이 미국에 나가 살면서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품을 쓰고 그 작품 안에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 민속을 담았거나 한국인의 감정이 스며 있는 작품을 쓴 것은 미국 속의 한국문학 혹은 큰 범위의 한국문학에 포함시켜야 함은 같은 논리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소설에 있어서는 Younghill Kang의 『The Grass Roof』⁵⁾, Changrae Lee의 『Native Speaker』⁶⁾ 등이 그 예이고, 시에 있어서는 1960년대 이후 많은 한국시의 번역판이 미국에서 간행되었는가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2세들의 작품이 다수 쓰여지고 발표되기도 하여 이런 문학작품들을 한국의 모습이 반영된 미국문학, 혹은 미국 속의 한국문학으로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서상의 여러 점들을 통괄하면서 주로 한국의 종교, 역사, 생활습속들이 미국인 혹은 한국인이 쓴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것을 대상으로 하며 반영 정도의 비교를 위해 중국, 인도, 일본의 반영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 후반이 될 것이다.

4) 한국인의 미국 이주의 역사는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1903년으로부터 起算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점, 미국 속의 한인사회, 뉴욕 한인회 편, 1986년, 오늘 刊,을 참고할 수 있다.

5) Younghill Kang, The Grass Roof, Follet Publishing Company, Chicago, New York, 1959

6) Changrae Lee, Native Speaker, Riverhead Book, New York, 1995

2. 본론

1) 세계사 속의 한국

세계의 역사 속에서의 한국, 혹은 세계의 문학사 속의 한국이란 우리의 상식을 비웃을 정도로 빈약하다. 서구 혹은 미국에서의 동양이란 중국으로 대신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바로 동양을 대신하는 것이며 근대 이후는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는 세계 문학의 업적들을 집성해 놓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가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서구나 미국 속의 한국이란 그만큼 그 반영이 빈약한 것이다.⁷⁾ 전반적인 한국 문화의 구미에의 반영이 그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재인 『세계의 역사』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진 이 교재는 문화의 발상과 고대와 중세 문화로부터 20세기 문화의 위기, 그리고 미래학에 속한다고 해야 할 지구의 (우주에의) 도전까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동양문화의 서술인데 이 책 제3장과 제8장에서 인도와 중국문화를 서술하고 제13장과 제18장에서 중국과 일본문화를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이 방대한 세계의 역사 서술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는 한 줄도 서술되지 않고 있다.⁸⁾ 미국에서 가르치는 세계의 역사 교재에서 동양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한국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추컨대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문학이 그 곳에 소개되거나 알려질 수 있지

7) 금세기 미래학계의 석학 앨빈 토플러는 그의 강연에서 되풀이해서 일본을 말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8) 이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선 다음의 목차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제 3장 고대 인도와 중국 3000 - 250 BC

3-1 인도문명의 기원 3-2 베다(Veda) 시대

3-3 중국문화의 기원 3-4 주(The Chou) 왕국

제 8장 고대 인도와 중국 600 BC - AD 600

8-1 인도계국 8-2 고대 인도의 생활

8-3 중국계국 8-4 고대 중국의 생활

못한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할 분야는 역사가 아니라 문학이다. 문학은 역사보다 개별적임과 동시에 한 문화의 구체적 반영과 척도가 되는 점에서 이 점을 고찰해야 한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나와 있는 아시아 문학을 다룬, 거의 유일한 문학사인, Elaine.H.Kim의 『Asian American Literature』를 보아야 한다.⁹⁾ 이 문학사에서의 아시아 문학의 기술 양상은 다음과 같다.

사무라이의 딸, 이쥬 스기모토, 1925 (일본)

나의 나라, 나의 국민, 임어당, 1937, 국경일의 축제, 임어당, 1945.중국 단편선, 임어당, 1952

중국 예술론, 임어당, 1967, 동양의 한 외교관, 우팅평, 1914, 황금산, 이성, 1967, 뉴욕의 말없는 나그네, 장예, 1950, (이상 중국) 초가, 강영힐, 1931, (한국)

아버지와 자랑스런 후손들, 파디 로웨, 1943, 중국의 다섯 딸들, 수왕, 1950, 딸 2세, 수왕, 1953, (이상 중국)

위싱턴의 여행자, 다니엘 이노우에, 1960, 미국인의 속임수, 다니엘 오키모토, 1971

만자나(Manzanar)의 이별, 짐 요시다, 1972, (이상 일본)

중국촌 가족들, 진양리, 임어당, 1948, (중국)

흰 과인애플, 존 시로타, 1972, 갈색 집, 히세에 야마모토, 1951, 요네코의 지진, 히세에 야마모토, 1951, 사사가와라양의 전설, 히세에 야마모토,

제 13장 중국과 일본 문화의 개화 AD 50- 1573

13-1 중국의 통일과 분화 13-2 중국의 새로운 황금기

13-3 몽고침략과 명의 부활 13-4 일본의 발전

제 18장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속과 변화 1450-1800

18-1 중국의 명.청조 18-2 도쿠가와(Tokugawa) 일본

World History, Peter.N.Sterns, Donald.R.Swartz,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989

9) Elaine.H.Kim, Asian American Literature, Temple University Press, 1982

1950, 요코하마의 캘리포니아, 토시오 모리, 1949,

내일과 오늘, 핫수예, 1949, 히로시마에서 온 여자, 토시오 모리, 1978
(이상 일본)

중국인의 닭고기 요리, 프랭크 진, 1972, 가족, 수왕, 1979, (이상 중국)
— 이상, 소설

시선집 『알려지지 않는 소리』에 수록된 시편들, 호놀룰루, 쿠니 오쿠타
라, 시애틀, 갠지 미하라, 뉴욕시, 키사부로 키노시마, 1963

시 모음 『북미의 일본 이민사』에 수록된 시편들, 제목 없음, 히데코, 가
스코 히라타, 타케코 후지모토, 토요시 히라마수, 키미코 온노, 1978

사무라이, 제임스 미쓰이, 1978, 로스엔젤레스의 정원사, 가오루 홍고,
1977, 전쟁 후, 카란 이시주카, 1979, 나의 질문, 다카코 앤도, 1979, 할아
버지, 니시카와, 1976 (이상 일본)

언제나 하는 일, 넬리 왕, 이름에 대하여, 조지 톱, 집으로 가면서, 웅
택림 (1960, 70년대) (이상 중국)

귀가, 김기정, 1972, 작품 명 없이 시인 이름만 나옴, 남신, (이상 한국)
— 이상, 시

이상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설과
시는 거의 중국과 일본의 문학이라는 점이며 그 밖의 문학은 인도, 필리
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문학을 빈약하게나마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 문학사에서 기술훜 연대는 대체로 태평양 전쟁 이후의 시기
이다. 또한 이 문학사에서 취급된 한국의 작품은 중국, 일본의 그것은 물
론 필리핀, 인도의 문학보다 더 빈곤하다. 소설에서는 강영희의 『초당
The Grass Roof』 뿐이고 시에서는 김기정의 『귀가』, 그리고 남신의 이름
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기정과 남신은 한국문학사에서도 조선문 학
사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인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시

시아 문학사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기술이 빈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Younghill Kang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경우, 한국문학이 미국문학에 알려진 것은 최근 2-30년 동안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이 된다.

2) 미국 문학 속의 중국, 일본

W. B. Yeats의 동양예의 경도와 禪사상에의 심취는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일찍이 ‘시는 전인격적인 표현물 Poetry is Personality as a Whole’이라고 언명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동양적인 載道之器 사상과 유관하다. 그러면서 Yeats는 禪사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피력한다.

하나의 행동이나 사상이 다른 행동이나 사상을 이끄는 것,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흐르는 의식의 흐름, -그것은 선불교의 영향이며 아직도 인도에 존재한다. 우리들 인간은 하나의 거울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것에 아무 것도 반영되지 못하도록 거울을 돌려버렸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해방된다. 의식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이다. ‘먼지가 끼지 않도록 거울을 닦아라’는 神秀의 말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먼지가 끼일 수 있느냐’고 한 惠能의 답변이 있다. 선예술은 모든 조화를 마음의 한 동작을 통해 바라보는 명상의 결과이다.¹⁰⁾

Yeats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神秀와 惠能의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神秀는,

10) Yeats가 Sturge Moore에게 보낸 편지, 윤호병, 정신주의의 이론적 접근, 현대사, 1993, 4p.

육신은 보살과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언제나 그 거울을 닦아서/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했고 惠能은

보살에는 원래 육신이 없고/ 거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맑은데/ 먼지 낄 틈이 어디 있는가¹¹⁾

이렇듯, Yeats 의 선사상에의 심취는 범상한 동양인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지스트 A. Lowell의 동양 미술에의 심취, W. C. Williams, W.Steevens, G.Snaider 등의 중국의 단시 혹은 일본의 하이쿠에의 경도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길교수가 밝힌 바 있지만¹²⁾ E.Pound 의 중국문화와 일본 문학에의 몰두는 그 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E.Pound 는 818 페이지나 되는 그의 대작, 「The Cantos」에서 작품의 약 3 분지 1 에 해당하는 분량을 동양 혹은 중국의 문화와 한자의 풀이에 바치고 있다. 「The Cantos」는 그의 야심작인 만큼 마르크시즘과 자본주의에의 비판을 포함한 세계의 諸相 파악의 총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매료되었던 중국 문화와 뜻글자로서의 한자와 한문에의 심취는 매우 크고 넓었던 것 같다. 그는 「The Cantos」에서 한자를 직접 시행에 삽입하면서 의미의 확충과 시적 효과를 노렸다.

루나라의 혈통

그의 둘째 아들이 공자였으니 仲
배우기도 했고 못 배우기도 했다. 공자와
엘류시스는 단지 학도에게만.

11) 이 점에 대해서는 SungBea Park ,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1993,P,22 참조

12) 김종길,현대시에 있어서의 동양과 서양,시론집,민음사,1986,P,488

공자가 가난했을 땐 음식 감독관,
피엔(부인)이 그를 추켜세우자 尼
그는 가축 감독관이 되었고, 시장 조사관이 되었다¹³⁾

어질 현을 무시하고
賢

힘있는 편에 뛰어드는 이들 (오합지졸)
11,9 엔 넓이와 시작이 있느니 총
仁 智 취
젠 치 이리
총이라 불리 우도다 衷¹⁴⁾

과 같이 그는 한자의 의미와 시각적인 효과를 시에 직접 살려 보려고 시험하였고 그런 만큼 그의 한문예의 해독력도 어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¹⁵⁾ 또한 그의 일본 문학예의 경도 역시 한자예의 관심 못지 않은 데, 그는 하이쿠 등 일본의 단시 뿐 아니라 일본의 서사극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이미지즘 운동의 선구 역할은 한시의 이미지에서 받은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불과 두 행밖에 안되는 그의 시 「지하철 정거장에서」의 중치(Super-Position)의 기법은 하이쿠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¹⁶⁾

파운드가 일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E. Penollosa 의 영향이 지대했음 또한 밝혀진 사실이다. 페놀로사는 1878년에 일본으로 와서 동경대 교수를 하면서 일본의 미술, 가요, 한시들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파운드는 페놀로사의 이러한 일본문학의 영역 원고를 페놀로사 부인

13) The Cantos, I,111, 이일환 역, 문학과 지성사, 1990. P, 143

14) Ibid, I,XXXV, P,240. 11,9 는 書經 商書 2장 9항, 총은 終,이리는 以禮

15) 김종길 교수는 파운드의 한자 해독력이 부족해서 많은 오류를 남겼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시론, 예즈러 파운드와 동양, 시론, 탐구당, p, 205

16) 김종길 시론집, 민음사, 1986, P, 487

으로부터 넘겨받아 그것을 퇴고하고 수정하여 한시 번역집 『Cathay』를 1915 년에 발간하기에 이른다.

파운드는 『Cathay』머리에,

“대부분 이백의 한문 원문으로부터 고 어네스트 페놀로사의 주석 및 모리, 아라가 양교수의 해독에 의거하여” 이 역시집을 낸다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파운드와 일본문학 내지 한시에의 관심과 페놀로사의 영향은 큰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파운드의 일본문학에의 경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서사문학이나 민속극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1917년 일본 민속극 「NOH」를 영역한다. 「NOH」의 영역 역시 페놀로사의 원고를 받아서 한 것이지만, 이 책¹⁸⁾ 에는 일본의 민속극, KAYOI KOMACHI, KUMASAKA, SHOJO, TAMURA, NOH, NO UYE 등이 대본대로 영역되어 있어 일본의 서사 민속극이 영어권의 세계에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 Whitman 의 시에서도 동양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휘터먼은 그의 시 「브로드웨이 행렬」(1860)에서 맨해튼을 지나가는 일본 사절의 기이한 광경을 보며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인도를 향한 항로」(1868)에서 아시아적 신화를 상상하기도 한다.

노래하는 아가씨, 춤추는 아가씨, 삼매경에 든 사람들, 구중심치의 황제들
孔子 자신, 위대한 시인들과 영웅들, 전사들, 계급 모두가
무리를 지어 사방으로부터 몰려나온다.알타이 산맥으로부터
티벳으로부터,중국의 굽어도는 4대 장강으로부터
남녘 반도들과 반대륙의 섬들로부터,말레이시아로부터
브로드웨이의 행렬, 의 일부¹⁹⁾

17) 이 점 또한 김종길, 시론, PP, 198 - 202 참조

18) E.Pound, E.Penollosa, The Classic NOH of Jafan,1917, Texabind

19) 윌터 휘트먼, 김종길 역,브로드웨이의 행렬

한 쪽에는 중국, 또 한 쪽에는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남쪽에는 여러 태양과 뱀갈만
 유창한 문학들, 웅대한 서사시, 여러 종교, 四性의 계급제도
 끝없이, 먼 유현한 범천왕, 자비로운 후진의 부처
 인도를 향한 항로,의 일부²⁰⁾

이러한 범세계적 상상은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적 상상력과 함께 T.S.Eliot 의 시에도 나타나며 엘리엇이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그의 하바드 시절의 스승 I. Babbitt 와의 연관 아래 고찰한 경우도 있다²¹⁾ 이 논문에 의하면, 엘리엇의 시 「The Waste Land」의 제3부, 「The Fire Sermon」,과 제5부, 「What The Tunder Said」, 그리고 「Four Quartets」의 「The Dry Salvages」 제 3장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낭만주의 시인 Coleridge 가 동양에의 관심을 담은 시 「쿠블라 칸」을 발표한 이래 Yeats, Whitman, Pound, Eliot, Perl Buck 그 밖의 많은 구미 시인 작가들이 동양을 노래해 영미 문학에 동양의 사상, 문화, 민속들을 담아보려고 한 노력들은 수없이 되풀이 되었다.

P.S.Buck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East Wind, West Wind」를 1930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뒤 1931년에 「The Good Earth」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동양적 취향의 소설들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이어 1947년에는 일본과 중국을 소재로 한 소설 「Far and Near」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P.S.Buck은 1960년에 한국을 다녀가기도 했고 한국의 입양아들을 받아 양육하기도 했지만 한국을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작품은 남기지 않았다.

20) 월터 휘트먼, 이창배 역, 인도를 향한 항로, 풀임, 해원출판사, 1993, P.189

21) 정갑동, T.S.Eliot 의 시와 불교사상, 성균관대 대학원

3) 미국문학 속의 한국

미국 문학 속에 나타난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의 종교, 사상, 문화, 민속의 예들을 이상과 같이 밝혔지만 그 실상은 이상에서 밝힌 것 보다 훨씬 풍부한 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논문의 주안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다지 만족하지 않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다고 한 말은 그 예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는 있되 여러 가지 유보 사항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E.H.Kim의 『Asian American Literature』에 나타난 대로 수많은 미국 문학 속의 동양문학을 기술하면서 한국 작가와 작품은 Younghill Kang의 「The Grass Roof」 한편 밖에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사정이 그렇다는 것은, 미국문학 속에 한국을 반영한 작품이 「The Grass Roof」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 물음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대답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미국문학의 중국이나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빈약하고 미국문학 속에 반영된 한국의 문화나 민속이 그들 나라의 것에 비해 빈곤한 것은 사실이나 1970년대 이후의 미국문학은 이전과는 달리 한국의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란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임 또한 참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특수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J. London 의 기행문학 처럼 한국 전쟁의 체험을 담았거나 D. Mccann 의 시처럼 시인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살았던 체험을 작품화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미국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에 의해서 미국 속에서 작품으로 쓰여진 경우를 말한다.

실로 우리가 미국문학이라고 말했을 때의 미국문학 속에 한국인 이민 1세대나 2세대가 쓴 문학이 포함되는가도 문제지만, 이 경우 미국인이 영

어로 쓴 문학 가운데 한국의 제상이 반영된 것은 문제시할 필요가 없고, 한국인 이민 세대가 영어로 작품을 쓰고 미국의 출판사가 출판한 경우 역시 별다른 숙고를 요치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 이민 세대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미국에서 출판한 경우와 한국인 이민 세대가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한국에 와서 출판하여 미국 시장에 책을 내놓은 경우는 각별한 논의를 요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참고 대상으로 하며,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도 미국 문학 속의 한국의 실상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그 면모의 일부를 밝히기로 한다.

Younghill Kang 의 「The Grass Roof」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 습속들이 영어로 쓰여진 문학작품으로 서방세계에 알려진 거의 최초의 작품이다. 1931년 Follett Publishing Company에 의해 뉴욕과 시카고에서 동시에 출판된 이 소설은 제1부와 제2부, 전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경은 원산 북쪽 ‘송둔지’라는 마을로 되어 있다. 소설의 제1부는 주인공 ‘나’의 유년 시절과 성장기의 개인적 체험, 그리고 무릉도원에서 운명의 날(한일합방)을 맞이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의 기록이고 제 2 부는 ‘나’가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접하는 과정, 3.1 운동에 가담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우가, 황조가(의 패러디) 등의 인용 뿐 아니라 한용운의 시, 독립선언문의 일부 등을 삽입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 소설은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작가의 투철한 독립정신, 일본의 한국 침략의 부당성 등을 고발한, 민족정신을 함양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소설이 출판된 즉시 한국의 문단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광수는 「강용홀의 초당」이라는 글을 써서 1931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소개했고, 『삼천리』에서는 1936 년 8월호에서 이 작품에 대한 좌담회를 열어 그 가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소설의 제 1 부 권두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초가 지붕 안에 게으르게
 거문고를 베개삼아 나는 누워 있노라
 나는 원하노라, 태평성대의 왕을(Kings of Utopian Ages) 꿈에서
 만나기를
 멀리서 들리는 어부의 피리 소리가
 내 초당의 문을 두드려
 내 꿈을 깨뜨리노니
 한국의 古詩²²⁾

‘한국의 고시’라고 한 것을 보아 작가가 시의 내용은 기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목을 기억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은 이 시의 내용은 歸田園의 고시조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는 시가임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한국의 정서를 다음과 같이 회억하기도 한다.

나는 눈을 감고 오랜 옛날의 기억들을 되살린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내 마음 속에 섬광처럼 떠오르기도 한다. 그런 생생한 기억들은 내가 요람에서 울고 난 뒤 처음으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므로 아직도 그것들은 나에게 생생하고 기이하고 인상적이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동안 북조선에 있는 나의 숙모 집에 머물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을 정확하게는 모른다. 아마 그 곳은 아시아에 속한 러시아이거나 만주의 어느 지방인지도 모른다. 내가 자란 곳은 석수장이가 쌓은 돌집이 있고 진흙과 나무로 바르고 엮은 집, 한국 여자들이 신는 코고무신처럼 가벼운 처마로 이엉을 한 그런 집이었다.²³⁾

22) 줄역, Younghill Kang, The Grass Roof, P.2

23) 줄역, Younghill Kang, Ibid, P. 4

이 소설에는 이러한 한국의 풍속이나 생활 모습들이 수없이 되풀이되어 묘사되어 있다. 그런 점, 서양인들로서는 한국의 고유한 민속이나 생활 모습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작품의 권두에 실린 Rebecca West 의 소개문은,

이 소설에서 놀라운 것은 들국화 한 송이도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양적 장식을 단 분주한 애니미스트의 생생함으로 나타낸 숨씨에 있다²⁴⁾ 고 했고, Eline Kim 은,

이 소설(The Grass Roof) 은 단순한 한국과 한국인의 재현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작품으로, 이 소설의 문맥 안에서 한국을 읽지 않으면 안되는 소설²⁵⁾ 이라고 기술했다. 미국에서의 이 소설에 대한 이같은 반응에 비하면 국내에서의 반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의 반응이란 구체적으로 김성철이 번역한 「초당」 상권이 있고, 논문으로는 김윤식교수의 「유년 시절을 그린 두 소설」이 있을 뿐이다.²⁶⁾ 그런 점, 미국문학과 한국문학의 관련 연구의 영역에서 이 작품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묘사한, 영어로 씌어진 소설은 Yonghill Kang 의 첫 작품이 나온 이후 오랫동안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인의 작품을 미국의 출판계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56년에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오래 머물렀던 Yongik Kim의 단편 「The Wedding Shoes」가 미국의 잡지 『Harpers Bazaar』에 발표된다. Youngik Kim은 「The Wedding Shoes」 외에도 단편 「The Happy Days」를 1960년에, 장편 「The Diving Gourd」를 1962년에 미국에서 발표하여 한국인의 생활 습속과 풍정을 영

24) Rebecca West, Ibid, Introduction

25) Eline.H.Kim. Ibid,P, 34

26) 김윤식, 사상계, 1970, 3 월호

어권의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의 영어로 씌어진 작품으로서는 처녀작인 「The Wedding Shoes」가 한국의 토속적 생활 풍습과 결혼에 얽힌 서민의 해학과 애환을 나타내는 데는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그래도 나는 시장에서 노인의 앞 판자 위에 놓인 꽃신을 보다가 오고 또 오곤했다.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올 때마다 이 시장 모퉁이에 더 오래 나를 서있게 한다. 다시 오면 꽃신이 한 켜레씩 눈에 띄이지 않았지만 사려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슬퍼서는 안될 일이 슬프게 되어버린 어떤 결혼의 내 추억처럼 꽃신을 사가는 사람은 눈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 저 판자 위에 꽃신 다섯 켜레만이 피난민으로 가득찬 시장의 공허를 담고 있다. 그것이 다 팔려가기 전, 한 켜레 신발을 위해 돈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고 싶지만 결혼 신발 아닌 슬픔을 사지나 않을까 두렵다.²⁷⁾

벼란간 비바람이 불던 다음 날, 마을을 둘러싼 네 개의 언덕과 푸른 하늘 사이에 공기는 맑고 풍성하여 꿈꿀 수 있는 그 거리, 농부들이 황금빛 새 쟁으로 단장한 마을 초가들은 젊고 매끄럽게 보였다. 우리 집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시끄러운 참새들이 수수밭으로 날아가기 전, 이른 아침 아버지는 암소를 사러 부산으로 떠났다. 그날 아침 농부 몇 사람이 자식들 혼인날에 쓸 갈비, 소대가리 등을 구하러 왔었다. 그들은 밭 너머 저 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 경쾌한 목소리로 떠들어 댔다. 모두 중매장이 입에서 나온듯 싶은 좋은 얘기만 하면서 아들 혹은 딸 사돈이 될 집안 자랑을 하고 있었다.²⁸⁾

27) Yongik Kim, The Wedding Shoes, 인용 부분은 현대문학, 1963, 8 월호에 한글판으로 실린 것임. 번역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가 자신이 번역해서 실은 것으로 보임. 현대문학 원 호, P, 178,

28) Ibid, P, 174

이 소설의 배경은 경남 충무 지방이고, 주인공은 천민인 백정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 소설의 주제는 신분제도에 얽힌 비애라기 보다 한국의 일반적 하층민들이 누리는 소박한 혼인 풍정이다. 「꽃신」으로 번역된 「The Wedding Shoes」는 혼인 때 신는 꽃무늬로 수놓인 신을 말하며, 그런만큼 이 소설은 한국인의 민속과 생활 정서를 혼인을 통해 나타내려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혼인 날 다음에 메뚜기가 짝을 지을 거요’라든지, ‘햅쌀은 낫고 설렁설렁한 바람이 두 사람을 이불 속으로 끌어 넣을 거요’ ‘호박이 너무 커서 지붕이 내려 앉지나 않을까?’ 같은 표현들에서 수확을 끝낸 한국의 가을 풍정과 혼인을 앞 둔 농민들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이러한 묘사를 통한 영어권의 독자들로부터의 경이와 찬탄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작가는 본고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민 세대의 작가가 아니고 한국인 영문학자이면서 외교관의 신분으로 소설을 썼던 작가, 영어로만 작품을 쓴 전문적 영문작가가 아닌 한국어로 소설을 쓰면서 영어로도 소설을 쓴 일종의 비전문 영문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5년에 다시 한국인 이민 2 세가 쓴 소설이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Changrae Lee의 「Native Speaker」가 그것이다. 「The Grass Roof」 이후 64 년, 「The Wedding Shoes」 이후 39년만의 일이다. 이 소설은 출간 즉시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었고 뉴욕 타임즈 주말판 서평에도 올랐으며 미국 최대 서점인 ‘반스 앤 노블’에서 작가 초청 사인회까지 벌였는가 하면 신예작가에게 수여되는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상인 ‘헤밍웨이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Native Speaker」는 한국계 이민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미국인이 읽어도 화가 날 정도로 정교한 문장’²⁹⁾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29) New York판, 세계일보, 1995,5,18

이 작품은,헨리 박이라는 한국계 이민 2세가 미국 사회에 발을 내리기 위해 겪는 갖가지 어려움을 묘사한다. 이민 2세인 헨리 박은 처음에는 조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나 차츰 인종적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조국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이민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별, 끝내는 뉴욕 시의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한국의 이민 세대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적 정서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아버지는 브롱스에 있는 채소 가게로 나를 불러, JFK에 가서 손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 그런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한국 손님이나 한국에서 오는 소하물을 가져 오셨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버지는 한국으로부터 손님이 오면 손님이 쓸 방이나 침대 손질, 재떨이 준비, 과일 깎기, 옥수수 차, 술 심부름 등을 나에게 시키곤 하셨다.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이런 일을 항상 어머니가 도맡아 하였고 그 때 나는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어머니를 도와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과일을 깎고 호두나 밤, 크레커, 맥주, 조니워커 등을 쟁반에 놓는 등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를 위한 준비를 하곤 하였다. 그들은 옷칠한 식탁을 앞에 놓고 카펫 바닥에 두 다리를 열십자로 꼬고 앉아, 마치 오래오래 못보다 만난 사람처럼 긴 이야기에 빠지곤 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곁에서 웃으며 이야기에 참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곁에 가까이 앉지는 않고 멀치감치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예외로 아는 것 같았다.³⁰⁾

나는 늘 여름 일요일이면 레리아와 미트를 데리고 풀러싱에 있는 한 거리를 걷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그럴 때면 지하철 부근에 있는 코리언 레스토

30) 줄역, Changrae Lee, Native Speaker ,Riverhead Books, 1995,PP, 55 - 56

랑에 가서 얼음을 얹은 메밀국수를 먹거나 한국인이 하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연한 채소를 고르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의 모든 식품들이 아버지의 채소 가게만 한 것은 없었다. 미트는 항상 유리로 된 긴 냉장 진열장 안에 쌓여 있는 다섯 종류 이상의 김치들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진열장 안에 있는 김치를 사가고 나면 즉시 같은 종류의 김치를 그 자리에 갖다 채워 놓는 일을 보고도 놀랐다. 그는 그곳을 ‘김치 백화점’이라고 불렀다.³¹⁾

이같이 치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이 소설에서는 수없이 펼쳐지고 거기에 한국인 이민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 하드보일드한 표현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이 소설은 하나의 경이,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시에 있어서도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인이 영어로 쓴 작품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D.Mccann 의 시편들이다. Mccann은 청년 시절 경북 안동 지역에 와서 수삼년을 생활했고 이후 하바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국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코넬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강의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맥캔이 최근 코넬 대학에서 하바드대학으로 직장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한국의 시들을 다수 영역 출판하여 영어권 국가에 한국 문학을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영역한 서정주시선집(Columbia Uni, Press) 외에도 고은시선,김지하시선(Human Lights Publishing, Co) 등을 낸 바 있으며 자신의 창작 시집 『Keeping Time』³²⁾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31) Ibid,P, 320

32) David Mccann,Keeping Time, Troubadour Press,1980. 이 시집에는,Tongwha Temple, The Old Country 등 23 편의 영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한국의 풍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흙처럼 캄캄한 부엌에서
스님은 대야에 번쩍이는
쌀을 연거푸 헹구고 있다

Tongwha Temple,전문,³³⁾

도시의 주민
세계주의자 글쟁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기 직전, 자정 15 분 전
만원 버스를 헐레벌떡 옮겨 타는 사람
변덕스런 기계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한 때 거나하게 취한 시인들이
논밭 길에서 달을 보고 포효하던 곳을 지나
집에 돌아와 벼루를 갈기도 하는 사람

Poet Kimsooyoung, 부분³⁴⁾

와 같이 그는 한국의 풍경, 역사, 인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시에 담아 노래했다. 시집 『Keeping Time』에는 이 밖에도 「Etymology」 「Mid September」 「The Old Country」 「Wedding Night」 등 한국을 소재로 한 시들이 들어 있다.

Cathy Song 은 한국계인 미국 시인으로 그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계간지에도 시를 발표하고 있다.³⁵⁾ 그는 시 「차이나 타운」에서 한국적 정서와 시각으로 중국인의 모습을 풍자한다.

33) D.Mccann 의 시, 고창수 역, 시문학, 1993, 5, P. 132

34) Ibid, P.134

35) Cathy Song, 서지문 역, 혈연의 끈 외 1편, 세계의 문학, 1995, 봄호

대나무 젓가락 임대 주택이
국수처럼 수북하다
독버섯이 자라고
마치 쌀을 저장하듯
이웃집에서
햇별을 훔쳐 저장한다

China Town, 2

아이들은 국에 떠오른 만두알 같다
김 오르는 가마솥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종이배 같다

아이들은 만두 껍질에
다섯 가지 양념하고 같이 싸서
반짝이는 보통이로
꼭꼭 아무려라

비취와 생강 뿌리
참깨, 자개, 상아와 같이 싸서

China Town, 5³⁶⁾

중국인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생활 용구나 식품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 시들은 중국인의 정서인 동시에 한국인의 정서라고 할 수 있지만 Cathy Song 은 미국 시인이면서도 한국계인 만큼 중국인의 이러한 모습들을 ‘도박하는 할머니’ ‘구두약처럼 번질거리는 아버지의 머리’ 등의 표현을 동원해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 세대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이 소설과 시를 쓰거나 아

36) Ibid, 210 - 212

니면 한국의 시를 영역하여 미국에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은 1960년대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 1980년대에는 많은 창작 혹은 번역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들 한국의 이민 세대들은 영어로 작품을 써서 직접 미국 문단에 보급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작품을 써서 이민 문단을 육성하기도 한다. 후자의, 미국 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숙고를 요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한국문학의 육성과 영어권 국가와의 접맥과 가교 역할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1960년대, 피터 현에 의해 『voice of Dawn』이, 1990년 이후, 앤소니 티크에 의해 구상, 서정주 시선 등이 영역판 한국 시선집으로 출간되었지만, 미국에서도, 1964년, 피터 리에 의해 『An Anthology of Korean Poetry』, 고원에 의해 『Contemporary of Korean Poetry』, 이성일에 의해 『The Wind and The Wave』, 김우창에 의해 『Selected Poems of Pak Mogwal』 등 11권이 출간되었고, 그 밖에도 1991년, 피터 리에 의해 松江과 孤山の 시가를 번역한 한국 고전 시가집 『Pine River and Lone Peak』가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 영역되기도 했다.³⁷⁾

콜럼비아 대학에서도 한국문학 번역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뉴욕 주립대학 (Stony Brook 소재) 에서도 한국 문학의 번역집이 서울대 관계자들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코넬대학에서는 한국문학 번역상을 공모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아직은 성과에 있어서 단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과 기대를 높이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히 미국문학 속의 한국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는 아직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미국 속에서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품을 쓰고 발표하는 많은 한국인 이민 세대들의 활동은, 그것이 미국문학 속의 한국 문

37) 이 점에 대해서는 김종길, 영미에 있어서의 한국시의 수용, 제 2 회 국제 세미나 발표문, 시문학 1995, 2 월호 참조

학이든 한국 문학의 세계화이든 이 논문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부기한다. 그들이 미국에서 쓰고 발표한 작품들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이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충하고 세계 속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접한 미국 속의 한국 이민 세대들의 문학적 활동을 여기에 간략하게 언급한다.

뉴욕에는 미동부 문인협회가 결성되어 『뉴욕문학』 제 5집을 낸 바 있다. 여기에는 47명의 회원들이 매년 작품을 발표하고 있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길벗」문학 동인이 10년째 작품집을 내고 있다. L.A 에서는 여러 문인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L.A 문인협회와 L.A 시인들이 중심이 된 「재미시인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특히 「재미시인협회」의 작품집 『外地』는 금년으로 제 6집을 발간하고 있고 이 사화집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까지 합해 26명의 한국 교포 시인들의 작품을 실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한국일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문학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미 국내 문단에 알려진 문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문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적 열정과 간단없는 작품 활동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양이 된다는 뜻에서 기대를 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3. 결론

이 논문은 미국문학에 나타난 동양 및 한국문화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동양문화라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언어 또한 다양해 한 사람의 연구로서는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언어를 문화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안목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란 힘겨운 일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영어로 씌어졌거나 번역된 중국과 일본의 문학작품 및 서사극의 일단을 고찰하고 인도의 불교사상이 영미시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장을 달리하여 미국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의 역사나 문화, 생활습속의 반영을 작품의 예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문학 속에 나타난 동양문화라는 것은 주로 한자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국문화, 그리고 근대 이후의 일본문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비교적 영성함을 면치 못하기는 하지만, 수편의 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 습속을 반영한 미국문학 작품들의 사례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 습속이 반영된 미국문학으로는 소설에서는 Younghill Kang의 「The Grass Roof」와 Yongik Kim의 「The wedding Shoes」, Changrae Lee의 「Native Speaker」, 시에서는 D. Mccann과 Cathy Song의 시편들이 있으며 기행문학 가운데서 J. London의 글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입수하지 못해 여기서는 상고하지 못했다. 이같은, 미국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 문화의 양상은 중국과 일본의 그것에 비하면 매우 영성한 것이지만 그것이 영성하면 할수록 이런 사례의 작품들은 미국문학과 한국문화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된다.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영미문학의 거장들이 중국,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에의 심취와 경도를 보이며서도 한국문화와 민속에는 등한히 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지정학적, 역사적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정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1960년대, 특히 1980년대 이후의 미국문학 가운데는 한국인 이민세대들의 영어 혹은 한국어로서의 문학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어 그 점 미국 속의 한국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양이 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것이 실령 미국문학이라 하기에는 유보적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사례로 언급하였다.

유럽 혹은 미국인들이 비록 한국문화, 한국문학에 등한하다 하더라도 우

리는 유럽 혹은 미국 속의 한국문학을 고양, 발전시켜 미국인들의 관심과 시선을 한국의 역사, 종교, 문화, 민속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그들의 문학 속에 한국이 반영되고 그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 창작인 그리고 연구자들의 책무라고 해야 하리라.